

반갑다, 구석기! ... 지역 첫 특별전

박철희 | © 2023-09-06 07:34:11

[앵커]

인류 문명의 시작, 구석기 사람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전시회가 대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돌을 깨고 다듬어 문명의 주춧돌을 놓은 원시인들의 세계로 박철희 기자가 안내합니다.

[기자]

사냥한 동물의 껍질을 벗기고
고기를 먹기 좋게 자르고 나무도
거침없이 베는 구석기 사람들의 만능도구,

주먹도끼가 전시장 한가운데 자리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못하는 게 없는 스마트폰 격입니다.

1978년 경기도 연천에서 처음 발견된
한반도 주먹도끼는 동아시아에도
선진 구석기 문화가 있었음을 증명해
세계사를 새로 쓰게 한 획기적 유물입니다.

물방울 모양의 주먹찌르개와 굽개,
망치 돌 같은 구석기인들의 생활 도구
100여 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냥 돌맹이처럼 보여도 자세히 보면
누군가 쪼개고 다듬은 흔적이 있습니다.

[김권구 계명대 행소박물관장]

“석기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돌로 이렇게 때린 자국, 간접적으로 때린 자국도 있고 그리고 때린 면은 동심원처럼
때린 충격이 퍼져갑니다.”

그래도 여전히 구분이 힘든 석기들,

이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김권구 계명대 행소박물관장]

“(구분이 힘들다 보니) 일본에서 조사를 했던 것이 있어서 논란이 있었는데...그 (시대) 층위를 또 보고 같이 나온 돌들이 같은 시대 것으로 볼 수 있느냐 (등을 종합 판단합니다.)”

후기 구석기 유적의 석기들은 사람이 만들었다는
걸 한 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해집니다.

특히 대구 월성동에서 나온 흑요석 재질 작은 돌날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는 많은 이에게 충격을
던졌습니다.

[장용준 국립대구박물관 학예연구실장(당시 성분 분석)]

“백두산으로부터 약 700km 정도 이동했다고 생각되고 (구석기인들이 한반도)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이동하
는 과정에서 흑요석을 가지고 (대구로) 내려왔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이 1990년대 이후
전국에서 채집한 유물을 한데 모은
‘돌, 석기로 태어나다’ 특별전은
구석기 시대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자립니다.

[CG/T]

지역 첫 구석기 특별전인데
7백만 년 전 시작된 전기부터 4만5천 년 전
후기까지 구석기 시대 진화의 흐름을 살필 수 있습니다.

석기는 직립보행 인류의 첫 도구이자
현대 문명을 가능하게 한 배경입니다.

[김권구 계명대 행소박물관장]

“(현대인이) 이렇게 자유롭게 디지털 기기를 만질 수 있는 것은 구석기인들의 끊임없는 도구 사용, 또 손동작 능
력의 개발에 힘입어서...”

대자연에 적응하는 구석기인의 생존 노력을
담은 이번 전시회는 9월30일까지 계속됩니다.
TBC 박철힙니다.(영상취재 최상보 CG 김유진)

계명대 행소박물관, '돌 석기로 태어나다' 특별전시

2023 매장문화재 미정리 유물 보존 및 활용 사업 연계

8월 29일~9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7시까지 100여점 석기 유물 전시

기사입력 2023-09-13 00:33:51 | 최종수정 2023-09-18 17:44:50 | 강승탁 기자 | stking12@newdailybiz.co.kr



▲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은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사)한국대학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23년 매장문화재 미정리 유물 보존 및 활용 사업 연계 특별전 '돌, 석기로 태어나다'를 2023년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열고 있다.©계명대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은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사)한국대학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23년 매장문화재 미정리 유물 보존 및 활용 사업 연계 특별전 '돌, 석기로 태어나다'가 오는 30일까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전시에는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이 전국의 주요 구석기시대 유적인 연천 전곡리, 단양 수양개, 순천 월평유적 등에서 지표 채집한 100여 점의 다양한 석기들이 전시되고, 영남지역에서 처음 열리는 구석기 전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기 구석기시대의 주먹도끼, 찌개 등 큰 형태의 석기에서 후기 구석기시대 대구의 월성동에서 확인되는 줌돌날과 같은 세밀한 석기까지 이어지는 전기, 중기, 후기 석기문화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 구석기시대 석기는 사람이 최초로 사용한 도구로서 당시 사람들의 기술 계통과 석재의 원산지를 기억하고 당시 사람들의 이동 범위와 교류 양상을 직간접으로 보여주는 소중한 인류 역사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구석기 전시를 통해서 구석기의 현대적 의미를 재조명하면서 석기의 재질과 종류, 타격법, 재가공 등 석기의 lifecycle 속에서 구석기를 종합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좋은 전시가 될 것으로 풀이된다.

특별전시는 가상현실(VR)을 구축하여 온라인 전시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전시는 무료이며 공휴일을 포함하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행소박물관 학예연구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강승탁 기자 (stking12@newdailybiz.co.kr)

이 기사 주소: <https://tk.newdaily.co.kr/site/data/html/2023/09/13/2023091300009.html>



계명대 행소박물관, '돌 석기로 태어나다' 특별전

온종림 기자 ✉ / 기사작성 : 2023-09-12 11:13:37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특별전 '돌, 석기로 태어나다'. 사진=계명대 제공

[대학저널 온종림 기자]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이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사)한국대학박물관 협회가 주관하는 2023년 매장문화재 미정리 유물 보존 및 활용 사업 연계 특별전 '돌, 석기로 태어나다'를 지난 8월 29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열고 있다.

이번 특별전시에는 계명대 행소박물관이 전국의 주요 구석기시대 유적인 연천 전곡리, 단양 수양개, 순천 월평유적 등에서 지표 채집한 100여 점의 다양한 석기들이 전시되고, 영남지역에서 처음 열리는 구석기 전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전기 구석기시대의 주먹도끼, 찌개 등 큰 형태의 석기에서 후기 구석기시대 대구의 월성 동에서 확인되는 좀돌날과 같은 세밀한 석기까지 이어지는 전기, 중기, 후기 석기문화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아울러 구석기시대 석기는 사람이 최초로 사용한 도구로서 당시 사람들의 기술 계통과 석재의 원산지를 기억하고 당시 사람들의 이동 범위와 교류 양상을 직간접으로 보여주는 소중한 인류 역사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전시는 가상현실(VR)을 구축하여 온라인 전시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전시는 무료이며 공휴일을 포함하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행소박물관 학예연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대학저널.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http://www.dhnews.co.kr>]

계명대 행소박물관, '돌, 석기로 태어나다' 특별전

김태진 기자 novel@imaeil.com

매일신문 입력 2023-09-14 17:34:02 수정 2023-09-14 17:33:55

2023 매장문화재 미정리 유물 보존 및 활용 사업 연계
오전 10시~오후 5시 관람 가능... 30일(토)까지 100여 점 유물



계명대 학생들이 행소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돌, 석기로 태어나다' 특별전을 관람하고 있는 모습. 계명대 제공

계명대 행소박물관이 2023년 매장문화재 미정리 유물 보존 및 활용 사업과 연계해 '돌, 석기로 태어나다' 특별전을 30일(토)까지 연다.

영남지역에서는 처음 열리는 구석기시대 유적 전시다. 계명대 행소박물관이 연천 전곡리, 단양 수양개, 순천 월평유적 등 전국 주요 구석기 유적에서 채집한 100여 점의 다양한 석기들이 선을 보인다.

전기 구석기시대의 주먹도끼, 찌개 등 큰 형태의 석기에서 후기 구석기시대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서 확인되는 좀돌날 등 세밀한 석기 펼쳐둔다. 구석기 문화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별전시는 가상현실(VR)을 구축, 온라인 전시로도 공개될 예정이다. 일요일과 추석 당일은 휴관이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행소박물관 학예연구팀(053-580-6992~3)으로 연락하면 된다.

HOME (/) > 뉴스 (/news/articleList.html?sc section code=S1N1) > 대학핫뉴스-일반대 (/news/articleList.html?sc sub section code=S2N2)

계명대 행소박물관, '돌 석기로 태어나다' 특별전시 열어

방완재 | 승인 2023.09.12 15:16

- 계명대 행소박물관, 2023 매장문화재 미정리 유물 보존 및 활용 사업 연계해 '돌 석기로 태어나다' 특별전 열어
- 8월 29일(화)부터 9월 30일(토)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17시까지 100여점의 석기 유물 전시



계명대 행소박물관이 2023 매장문화재 미정리 유물 보존 및 활용 사업과 연계해 '돌 석기로 태어나다' 특별전을 열었다.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은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사)한국대학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23년 매장문화재 미정리 유물 보존 및 활용 사업 연계 특별전 <돌, 석기로 태어나다>을 2023년 8월 29일(화)부터 9월 30일(토)까지 열고 있다.

이번 특별전시에는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이 전국의 주요 구석기시대 유적인 연천 전곡리, 단양 수양개, 순천 월평유적 등에서 지표 채집한 100여 점의 다양한 석기들이 전시되고, 영남지역에서 처음 열리는 구석기 전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전기 구석기시대의 주먹도끼, 찌개 등 큰 형태의 석기에서 후기 구석기시대 대구의 월성동에서 확인되는 좀돌날과 같은 세밀한 석기까지 이어지는 전기, 중기, 후기 석기문화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아울러 구석기시대 석기는 사람이 최초로 사용한 도구로서 당시 사람들의 기술 계통과 석재의 원산지를 기억하고 당시 사람들의 이동 범위와 교류 양상을 직간접으로 보여주는 소중한 인류 역사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대인이 핸드폰과 태블릿 컴퓨터 등 디지털 첨단기기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손놀림이 가능하도록 토대를 놓아준 것은 손을 사용하여 수백 년간 도구를 다양하게 만들어온 구석기인들의 노력과 경험에 힘입은 바 크다고 여겨진다.

이처럼 구석기 전시를 통해서 구석기의 현대적 의미를 재조명하면서 석기의 재질과 종류, 타격법, 재가공 등 석기의 lifecycle 속에서 구석기를 종합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좋은 전시라고 판단된다.

특별전시는 가상현실(VR)을 구축하여 온라인 전시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전시는 무료이며 공휴일을 포함하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행소박물관 학예연구팀(053)580-6992~3)으로 연락하면 된다.

저작권자 © 교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완재

계명대 행소박물관, '돌 석기로 태어나다' 100여점 석기 유물 전시

✎ 백운용 기자 | ☎ 승인 2023.09.14 14:21



계명대학교
KEIMYUNG UNIVERSITY



사진제공=계명대학교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계명대 행소박물관은 "2023 매장문화재 미정리 유물 보존 및 활용 사업 연계해 '돌 석기로 태어나다'특별전을 열고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17시까지 100여점의 석기 유물을 전시한다"고 14일 말했다.

계명대학교에 따르면, "2023년 매장문화재 미정리 유물 보존 및 활용 사업 연계 특별전 '돌, 석기로 태어나다'를 주제로 석기 유물을 전시하고 있으며 이번 특별전시에는 전국의 주요 구석기시대 유적인 연천 전곡리, 단양 수양개, 순천 월평유적 등에서 지표 채집한 100여 점의 다양한 석기들이 전시되고, 영남지역에서 처음 열리는 구석기 전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전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paekting@naver.com



백운용 기자 paekting@naver.com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계명대 행소박물관, '돌 석기로 태어나다' 특별전시

✎ 이정환 기자 | ⓒ 승인 2023.09.12 17:50

9월 30일까지 100여점의 석기 유물 전시



구석기 유물 특별 전시회.

[한국대학신문 이정환 기자]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은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사)한국대학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23년 매장문화재 미정리 유물 보존 및 활용 사업 연계 특별전 '돌, 석기로 태어나다'를 오는 30일까지 연다.

이번 특별전시에는 계명대 행소박물관이 전국의 주요 구석기시대 유적인 연천 전곡리, 단양 수양개, 순천 월평유적 등에서 지표 채집한 100여 점의 다양한 석기들이 전시되고, 영남지역에서 처음 열리는 구석기 전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전기 구석기시대의 주먹도끼, 찌개 등 큰 형태의 석기에서 후기 구석기시대 대구의 월성동에서 확인되는 좀돌날과 같은 세밀한 석기까지 이어지는 전기, 중기, 후기 석기문화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아울러 구석기시대 석기는 사람이 최초로 사용한 도구로서 당시 사람들의 기술 계통과 석재의 원산지를 기억하고 당시 사람들의 이동 범위와 교류 양상을 직간접으로 보여주는 소중한 인류 역사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대인이 핸드폰과 태블릿 컴퓨터 등 디지털 첨단기기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손놀림이 가능하도록 토대를 놓아준 것은 손을 사용해 수백 년간 도구를 다양하게 만들어온 구석기인들의 노력과 경험에 힘입은 바 크다고 여겨진다.

이처럼 구석기 전시를 통해서 구석기의 현대적 의미를 재조명하면서 석기의 재질과 종류, 타격법, 재가공 등 석기의 라이프사이클 속에서 구석기를 종합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좋은 전시다.

특별전시는 가상현실(VR)을 구축해 온라인 전시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전시는 무료이며 공휴일을 포함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이정환 기자 leejh@unn.net

계명대 행소박물관, '돌, 석기로 태어나다' 특별전 열어..100여점 석기 유물 전시

박종률 기자 | 승인 2023.09.12 11:29

30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구=뉴스프리존]박종률 기자=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은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사)한국대학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23년 매장문화재 미정리 유물 보존 및 활용 사업 연계 특별전 '돌, 석기로 태어나다'를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계명대 행소박물관이 '돌, 석기로 태어나다' 특별전을 열고 있다.(사진=계명대)

이번 특별전시에는 계명대 행소박물관이 전국의 주요 구석기시대 유적인 연천 전곡리, 단양 수양개, 순천 월평유적 등에서 지표 채집한 100여 점의 다양한 석기들이 전시되고, 영남지역에서 처음 열리는 구석기 전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전기 구석기시대의 주먹도끼, 찌개 등 큰 형태의 석기에서 후기 구석기시대 대구의 월성동에서 확인되는 좀돌날과 같은 세밀한 석기까지 이어지는 전기, 중기, 후기 석기문화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별전시는 가상현실(VR)을 구축해 온라인 전시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전시는 무료이며, 공휴일을 포함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행소박물관 학예연구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박종률 기자 jrpark69@naver.com

대학박물관 수장고 유물, 세상 밖으로

연세대·아주대·계명대서 전시
동굴 출토 유물·토기 등 선보여

등록 2023-05-09 오전 9:22:51
수정 2023-05-09 오후 6:51:40
이윤정 기자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대학박물관 수장고에서 오랫동안 보관된 매장 유물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유산 미정리유물 보존 및 활용 사업(이하 미정리유물 정리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0일부터 연세대 박물관, 7월 아주대학교 도구박물관, 8월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에서 전시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단양 금굴 유적 출토 구석기시대 여러면석기(사진=문화재청).

미정리유물 정리사업은 2000년대 이전 대학박물관이 발굴조사로 수습했으나 미처 정리하지 못한 채 보관만 하던 매장 유물들에 대해 전문인력을 채용해 유물 등록·정리, 보고서 발간을 하도록 하고, 유물 전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화재청은 2020년부터 미정리유물 정리사업

을 통해 650여명의 인력을 채용했다. 이들의 작업으로 그간 28만여점의 유물을 정리하고, 5만4000여점을 국가귀속했다. 또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30개 대학박물관에 국비 160억 원을 투입해 9만여점의 유물을 국가귀속할 예정이다.

5월 10일부터 9월 16일까지 연세대학교 박물관에서는 '동굴, 사람을 잇다'라는 주제로 전시를 연다. 제천 점말 동굴, 단양 상시 바위그늘 등 동굴유적 발굴조사 50주년을 기념한 특별전시회를 개최해 동굴 유적들과 발굴조사 관련 자료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아주대학교 도구박물관에서는 7월부터 10월까지 '보령 관창리 유적의 토기 문화'전이 열린다. 출토된 토기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청동기시대 사람들의 생활사를 탐구하는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에서는 8월부터 9월까지 '돌, 석기로 다시 태어나다'를 주제로 전시를 진행한다. 구석기 시대에 자연석이 인위적인 가공을 통해 석기로 변화해 가는 양상을 지역별 유물을 통해 알아본다.